

<수능특강 독서 요점정리>

정서인T가 정리함

인문예술 01 - 수능특강 51쪽

<관학과 과거제를 개혁하려던 유형원의 제안>

- 교육기관 : 서울(성균관), 지방(향교)
- 관학 : 지금의 국립대
- 사학 : 지금의 사립대

과거제가 인격에 대한 검증 없이 능력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음. 이에 따라 유형원은 '공거제'를 제시.

- 각 고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이숙'
- 태학(지금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학제를 기본 제도화 하고자 함.
- 부적절한 인재를 선발한 당사자는 파직이나 징계.
- 학제 개편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균전제'도입 주장
- 균전제 :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유화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재분배. 사적 소유에 바탕을 둔 것을 공적 개념, 즉 국유화를 주장함.
- 조선의 제도 VS 유형원 = 사적 소유 VS 공적 소유

인문예술 08 - 수능특강 75쪽

<모방론 비판>

모방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아리스토텔레스 : 모방을 통해 예술의 궁극적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봄.
- 헤겔 :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비판. 모방은 기술적 숙련일 뿐 예술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으며, 대상 자체에 대한 본질적 고려는 간과된다고 보았음. 내면의 감정이나 사상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

조금 더!!!

+++ 리얼리즘과 하이퍼리얼리즘 +++

리얼리즘은 말 그대로 사실주의를 말한다. 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사실에 가깝게 그리는 정물화나 인물화 사진 등을 가리킨다. 리얼리즘은 사실에 가깝게 표현할수록 높은 가치로 평가된다.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 극단적인 사실성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리얼리즘이 인물을 사진처럼 묘사한다면, 하이퍼리얼리즘은 모공의 털 하나하나까지 모두 묘사하는 것이다. 대상을 정밀하게 표현함으로써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다다르고자 한다. 하이퍼리얼리즘은 예술뿐만 아니라, 언론 및 정치 등에도 인용되는 개념이다. 걸프전을 리얼리즘이라고 하자. 이 때, 언론을 통해서 복제되어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 정보들은 하이퍼리얼리즘이 된다. 전쟁의 사실이 아닌 극한에 다다를 만큼 더 사실적으로 복제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